



## ‘명품 다리’ 위상 뽐내는 마창대교 초속 78m 강풍 견디는 해상 교량

경남 창원에 있는 옛 마산시를 자동차로 드라이브하다 보면 바다를 가로지르는 웅장한 해상대교가 맞이한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물 눈에 보이네"로 시작하는 '가고파'의 고향, 마산 합포만을 가로지르는 마창대교다.

경남 지역 최초의 민자 건설 교량인 마창대교는 옛 마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길이 1.7km의 해상교량으로 2008년 7월 개통했다.

마창대교는 왕복 4차선, 폭 20m로 사장교와 양쪽 연결교 2개로 구성됐다. 내진설계에다 초속 78m의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장교 형식으로 주탑 높이는 164m.

마산항을 오가는 대형 화물선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리 높이를 64m로 건설했다. 또 주변 자연경관과 도로 안정성을 고려해 S 자형 사장교 형식을 선택했다.

### 편리하고 경제적인 마창대교

마창대교 개통 전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이면 마산 시내 교통 혼잡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최대 기계공단인 창원공단 등의 산업물류 수송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마창대교 개통으로 기존 시내 도로를 우회하는 것보

다 가리로는 약 7km, 시간으로는 약 30분 단축돼 통행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마창대교를 건널 때면 역동적인 경남의 맥박과 남해안 시대를 여는 국토 대동맥으로서의 위상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

특히 진주, 고성, 통영, 거제 등 경남 서남부권에서 창원, 김해, 부산 동남권으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 그동안 남해고속도로의 지정체로 불편이 컸으나 풍광이 뛰어난 마창대교를 경유하면서 즐겁고 여유로운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 사계절 아름다운 마창대교

길은 세상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마창대교가 새로운 세상의 빛으로 거듭나고 있다.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합포만의 아름다운 풍광과 어우러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마창대교의 아름다운 경관조명은 보는 이들을 낭만과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한다.

조명이 불을 밝히는 부분은 주탑부와 사장교 특색을 살린 와이어, 교각부 등이다. 조명 연출시간은 평일 기준 일몰 때부터 밤 12시까지.

최근에는 도로 이용객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기존 1m에서 2m로 높였다. 세계 최초로 기존 난간에 추가로 길이 3.4km의 '원통회전형 4단 난간'을 설치했다. 원통형 회전 난간이어서 사람들이 매달려 난간에 오를 수 없다.

이전의 안전난간은 화물차나 SUV 차량 등 운전석이 높은 운전자들이 2차선을 주행할 때 바다가 그대로 보여 불안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새로운 안전난간은 강한 바람이 부는 바다 위 해상교량인 점을 고려해 초속 60m 이상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다.

난간 사이에는 15cm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바다 조망권을 확보했다.

마창대교는 장엄한 해상교량으로 이용객들과 공존하기 위해 꾸준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편리하고 아름다운 명품 교량으로서의 위상도 쌓아 가고 있다. ①

